

# 일본 규슈



나가사키 그라버엔



구마모토 돌고래 워칭

## 걸음걸음마다 배운다

### 역사와 자연의 희로애락

일본 열도를 휩쓸고 간 지진의 여파 속에서도 어김없이 계절은 흘러간다. 다행히 도호쿠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본 대부분 지역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상태.

도호쿠에서 1천 km 이상 떨어진 규슈(九州) 지방 역시 지난달에는 관광객이 급감했지만 4월 들어 다시 여행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최대 휴일 중 하나인 5월의 '골드 위크' 특수 역시 규슈 지방으로 몰리고 있다. 국내 여행업계 역시 초저가 상품을 출시하는 등 관광객 모집이 한창이다.

최근에는 광양-시모노세키 페리 항로 개설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접근하기 더욱 편리해졌다. 또 지난달에 규슈 신간선이 개통돼 후쿠오카 하카다역에서 남쪽 가고시마까지 1시간 20분, 구마모토 역까지는 불과 3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점도 여행객들에게는 반가운 뉴스다.

#### ▲자연이 준 선물, 자연에서 배우다.

규슈지방에서 만날 수 있는 색다른 경험 중 하나는 돌고래 워칭이다. 국내에서도 돌고래 쇼를 관람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실내에서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돌고래는 장관이다. 구마모토 현 아마쿠사 츠치시마 섬 연안에는 야생 돌고래 30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고 10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 사시사철 돌고래들을 만날 수 있다.

가까이 돌고래떼가 등장하면 저절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30여분 동안 푸른바다에서 돌고래와 동화같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매년 18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아소(阿蘇)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웅장한 칼데라를 배경으로 온천,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하다. 아소산 정상은 철마다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고 잉글리쉬 로즈가든 '하나야소비'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일본 장미를 감상할 수 있다.

운젠국립공원은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이다. 1991년 화산 폭발로 부서지고 땅에 묻혔던 가옥 여러채를 그대로 보존한 피해마을 미즈나시 혼진은 화산의 피해를 직접 볼 수 있어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다. 운젠다케 재해기념관은 화산 체험 학습시설이다. 재해의 현장을 방지하지 않고, 재해의 기억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일본 사람들의 특성이 엿보이는 곳이다.

#### ▲곳곳에서 역사를 만나다

사가현 가라츠의 나고야성터는 우리나라와 뿔 수 없는 곳이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곳에 나고야성을 쌓고 이곳을 출발 기지로 삼아 조선 침략 계획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이다.

지금 성은 없어졌지만 이 터에 세워진 나고야성 박물관은 당시의 역사를 그대로 복원, 전시해 두고 있다. 나고야 성터에서 만날 수 있는 다원(茶苑) '해월'에서는

화과자가 포함된 정통 일본 녹차를 시음할 수 있다.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그라버엔은 개항 후 일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공간. 영국인 무역상이었던 토마스 그라버(Thomas Glover)의 저택을 중심으로 메이지 시대 서양식 저택들이 모여 있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돌출계 안에 묻힌 2개의 하트형 돌을 발견하면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일본 3대 성(城)으로 꼽히는 구마모토성은 7년간의 공사 끝에 1607년 완성된 공간이다. 일본 축성술의 달인으로 꼽히는 영주 카토 키요마사가 진두지휘해 지은 구마모토성은 일본 마지막 내전인 서남전쟁 기간 동안 52일간 농성을 견뎌낸 난공불락의 요새로도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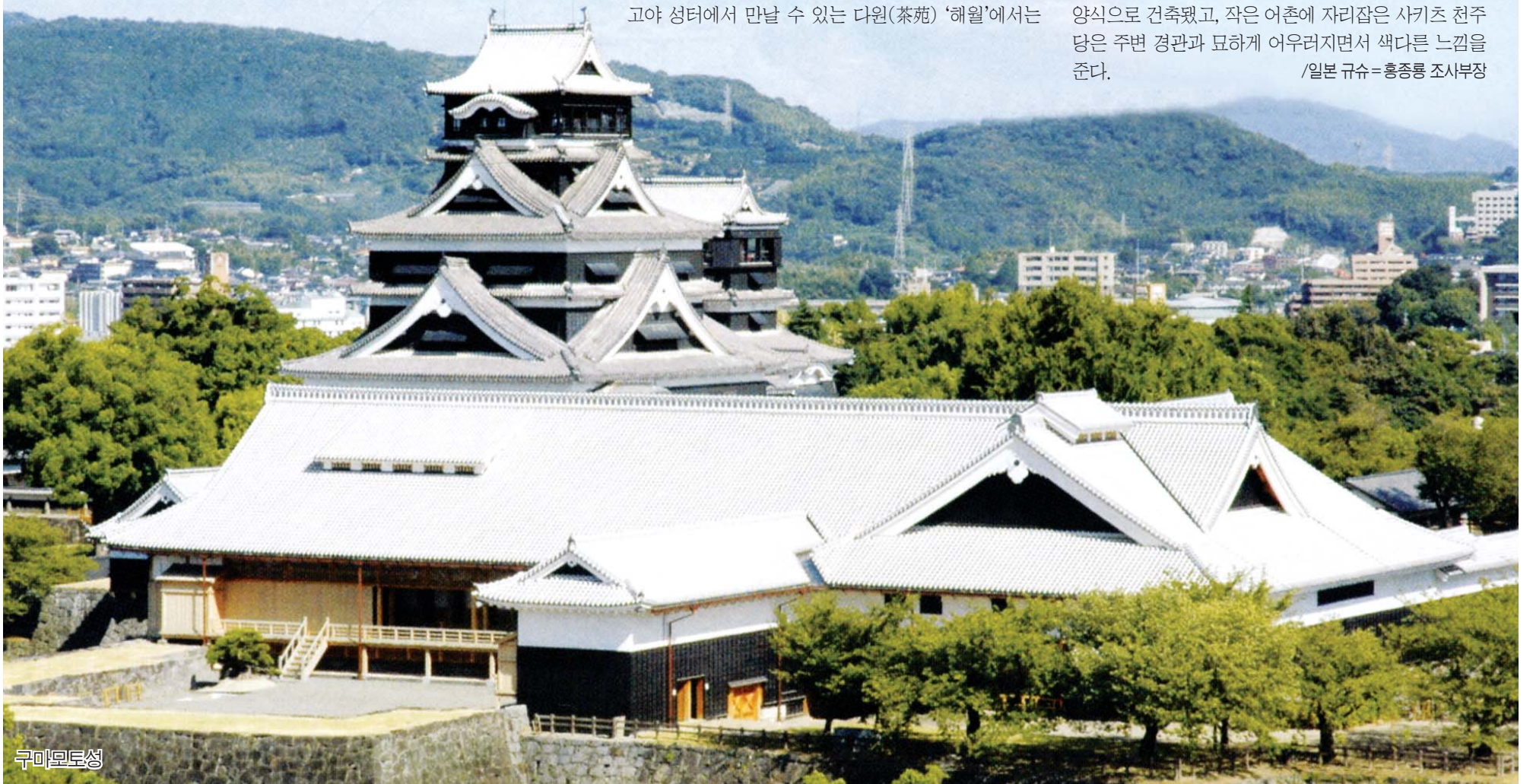
#### ▲믿음의 고장-순교의 현장을 찾아

토착종교가 강한 곳이 일본이다 보니 기독교·가톨릭 등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의외로 규슈지역에는 가톨릭 성지들이 많다.

나가사키의 니시자가 26인 순교지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그리스천 금교령으로 처형당한 선교사 6명과 일본인 신도 20명이 처형당한 곳이다. 오오라 천주당은 일본 국보로 지정된 곳으로 일본 가톨릭 26성인의 영혼에 바쳐진 공간이기도하다.

구마모토 아마쿠사 섬의 오에 천주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됐고, 작은 어촌에 자리잡은 사키츠 천주당은 주변 경관과 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색다른 느낌을 준다. /일본 규슈=홍종률 조사부장

日 지진 여파 속에도 여행객 발길 이어져  
가톨릭 성지 돌아보고 돌고래쇼 관람도



구마모토성

#### 어디서 묵을까

일본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료칸 체험이다. 사가현 가라츠시에 위치한 '요요카쿠'는 100년 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메이지 시대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옛 일본식 목조 건물이 인상적인 료칸이다. 1880평에 이르는 부지 안에는 단 20개의 객실만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 MBC 드라마 '리플리' 출연배우들이 킷키유천, 이다해씨 등이 묵고 간 호텔로



인터넷 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대표 음식인 가이세키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도자기로 유명한 지역 특성을 살려 도자기 갤러리도 운영한다. 주인공 내외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따뜻한 봄 즐거운 영화와 함께하세요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원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터워, 황금주치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색깔있는 영화선택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

상무점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1관 토르-천동의 신 (12세)
2관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이별 (15세)	2관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15세)
3관 제인어 (12세)	3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4관 적과의 동침 (12세)	4관 토르-천동의 신 (12세)
5관 더라이트-악마는있다 (15세)	5관 적과의 동침 (12세)/제인어 (12세)
6관 적과의 동침 (12세)	6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7관 마오의 라스트 댄서 (전세)	7관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이별 (15세)
8관 토르-천동의 신 (12세)	8관 더라이트-악마는있다 (15세)
9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9관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15세)
10관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15세)	10관 마오의 라스트 댄서 (전세)
	10관 적과의 동침 (12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자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 - 0600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